

한국인 건강수준 및 질병양상의 변천

천병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한국인의 건강수준의 경시적 변화를 사망률과 사망원인, 질병별 이환률, 그리고 생활습관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우리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인 자료를 근거로 질병양상과 건강수준의 경시적변화를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한국인의 건강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용할 자료는 우리 나라를 대표할 수 있으며 비교 가능한 최소한의 표준화가 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인용 가능한 전국적인 자료원은 통계청의 사망자료와 국민건강영양조사 뿐이다.

결과: 사망률은 1992년 10만명 당 556명에서 2002년에 512명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사망원인은 1992년에는 암이 10만명 당 111명으로 1위였는데 2002년에도 암이 131명으로 계속 1위로 사망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0년을 기점으로 위암 사망률의 감소와 폐암사망률의 증가가 특징적이다. 그 다음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순으로 이는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지만 이들 질환으로 인한 절대적인 사망률은 감소하였다. 즉, 사망률이 감소하는 질환들은 뇌혈관질환(뇌출혈), 심장질환, 고혈압성 질환, 만성간질환, 호흡기결핵, 운수사고 등이었다. 그러나 고혈압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는 실제로 고혈압의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니고 사망원인 작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었다.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10년 간 사망률이 증가하는 질병은 암,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자살, 허혈성심질환, 뇌경색 등이었다. 이와 같은 변화양상은 성별,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한 중요한 질병의 유병률의 변화를 보면, 1998년에 비해 2001년에 증가하는 질병들은 암,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뇌졸중(뇌경색), 당뇨병 등이었다. 그러나 만성간질환(만성간염 및 간경변증) 유병률은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식품매개성 질병과 기타 급성전염병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광우병, 조류독감, SARS 등 돼 같은 해외유입 신종전염병이 유행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생활습관의 변화양상을 보면, 1998년에 비해 2001년이 남녀 모두에서 흡연률과 음주율은 감소하였으며 적절한 운동실천율은 증가하여 바람직한 변화가 관찰되었지만 비만율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질병부담은(DALY) 남자에서는 손상이 여자는 뇌졸중이 가장 많았다.

결론: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여 건강수준이 향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등과 같은 만성퇴행성질환이 대부분으로 삶의 질의 개선이 시급하다. 사망률이 감소하는 질환들은 뇌혈관질환(뇌출혈), 심장질환, 고혈압성질환, 만성간질환, 호흡기결핵, 운수사고 등이었다. 그러나 사망률이 증가하는 질병은 암,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자살, 허혈성심질환, 뇌경색 등이었다. 유병률이 증가하는 질병들은 암,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뇌졸중(뇌경색), 당뇨병 등이었다. 그러나 만성간질환(만성간염 및 간경변증) 유병률은 감소하였다. 생활습관은 흡연률과 음주율은 감소하였으며 적절한 운동실천율은 증가하여 바람직한 변화가 관찰되었지만 비만율은 증가하였다.